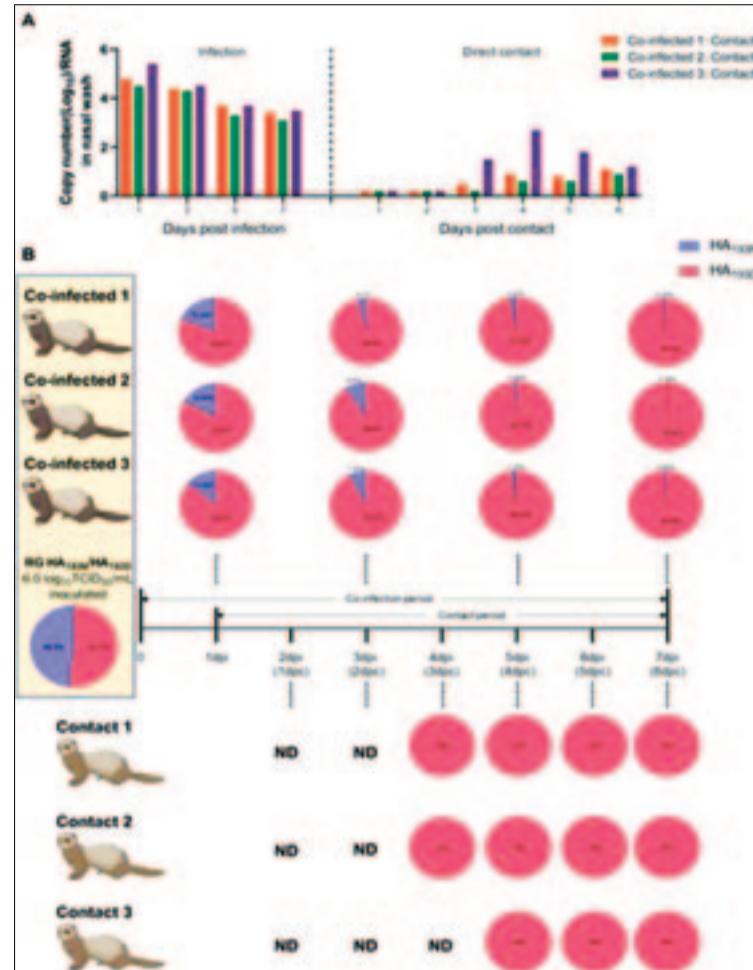


국내 발생 고병원성 조류독감, 인체감염 가능성 있다

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2021년 국내 발생 H5N1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 두 변이 바이러스의 경쟁적 증식 및 전파 [BS 제공]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인체감염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감염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인접 국가인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역시 포유류 및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됐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신변

종 바이러스 연구센터 최영기 센터장 연구팀은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속주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인 항원성 돌기(헤미글루터닌)에 변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변이 부위 아미노산만을 치환한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세포 및 동물에서 변이의 영향력을 평가했다.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 결합력을 비교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는 조류의 수용체뿐만 아니라 표유류의 수용체에도 환경된 결합력을 나타냈다. 조류, 표유류 및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한 감염 실험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인체 유래 세포에 대한 환경된 감염성을 보였다.

동물실험 시 조류(닭)에서는 기

가 유럽, 북미 및 남미 대륙에서부터 점차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로 겨울철새가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재조합을 통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일부는 중간장벽을 넘어 인체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20세기에 3차례, 21세기에 1차례의 팬데믹을 일으켰던 바이러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여부 및 인체 감염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팬데믹 발생 및 전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BS 연구진은 2021년 국내 발생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가 속주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부위인 항원성 돌기(헤미글루터닌)에 변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

연구진은 변이 부위 아미노산만을 치환한 재조합 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세포 및 동물에서 변이의 영향력을 평가했다. 기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의 세포 수용체 결합력을 비교한 결과, 변이 바이러스는 조류의 수용체뿐만 아니라 표유류의 수용체에도 환경된 결합력을 나타냈다. 조류, 표유류 및 인체 유래 세포를 이용한 감염 실험에서도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비교하여 인체 유래 세포에 대한 환경된 감염성을 보였다.

이정복 기자

필수과 전공의 10년간 610명 줄어… 90%가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전공의가 최근 10년 만에 610명 감소, 이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한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 자

료에 따르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543명에서 2023년 1933명으로 24.0% 감소했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정의했다.

전체 전공의 숫자가 2014년 1만

2891명에서 2023년 1만273명으

로 20.3%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

도, 필수과목 전공의 숫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 (84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610명)의 87.9%(536명)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

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줄어 343명이 감소했다. 이어 영남 105명, 호남 50명, 충청 29명, 강원 7명, 제주 2명 순이었다.

다른 필수과목 중에서는 외과 전공의가 599명에서 423명으로 29.4%(176명) 감소해 두 번째로 많이 줄었다.

이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환 기자



국립한밭대-충남대, 글로컬대학30·통합추진 합의

오용준 총장 이진숙 총장, 직접 만나 전격 합의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와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가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국립한밭대 오용준 총장과 충남대 이진숙 총장은 31일 오후 4시, 충남대 대학본부에서 '충남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대학 간 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는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을 위한 최선의 혁신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한다 ▲글로컬대학30 사업 기간 내 통합 대학이 출범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글로

벌 2024년 1월 23일

일(국립한밭대), 1월 25일(충남 대) 각각 개최된 학무위원회(학무회의)를 통해 통합기반 혁신을 중심으로 한 글로컬대학30 사업 재추진에 대해 결정했으며, 후속 사항으로 1월 30일 학무위원회(학무회의)를 열어 합의문의 내용 및 문서를 각각 심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용준 총장과 이진숙 총장은 1월 31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직접 만나 해당 합의문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합의문을 바탕으로 양 대학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2024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 및 대학 간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 대학 구성원의 이견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인정하며, 지속적으로 조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에 앞서 양 대학은 1월 23일 김정환 기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개편

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비대면 휴일·야간 진료기관 안내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종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 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 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 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김지영 공동수기정책 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송병배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공식 SNS 바로가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謹賀新年



갤러리아타임월드 2024 설 선물세트 제안

갤러리아 프리미엄 PB 브랜드 고메이 494 세트, 농 · 수 · 축산 선물 세트 등 강화

갤러리아타임월드가 24년 푸른 용의 해 인 갑진년 설을 맞아 귀한 분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한 푸르름이 깃들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한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제안한다.

이번 설 선물세트는 갤러리아가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와인 전문 수입사 비노갤러리아 와인 세트와 갤러리아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고메이 494 PB세트, 20~30만원 이하 농·수·축산 선물 세트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갤러리아몰', '카카오톡 선불하기'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객 선호도가 높은 중·저가 세트를 강화하는 등 갤러리아의 차별화된 가치를 담은 설 선물세트를 양선해 선보인다.

■ 비노갤러리아 독점 와인세트

프리미엄 와인 수입 기획사 비노갤러리아가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랑스 와인 2종세트로 '사디말롯(SADI MALOT)' 샴페인, '루이 플뢰로(LOUIS FLEUROT)' 와인을 제안한다.

먼저, '사디말롯(SADI MALOT)'은 프랑스 에페르네

에 위치한 샘페인하우스로 5대에 걸쳐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구성했으며 가격은 10만~30만 원대다.

'루이 플뢰로(LOUIS FLEUROT)'는 부르고뉴 지방 뉘 생 조르주 마을에서 생산되는 와인이다. 포도 자체의 신선히과 와인 산도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와인을 7만~30만 원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비노494에서는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와인부터 중저가 샴페인, 와인과 곁들여 먹기 좋은 프리미엄 치즈까지 고품질의 상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 갤러리아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PB 브랜드

갤러리아 프리미엄 PB 브랜드 '고메이 494' 세트는 12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우수한 상품을 직접 발굴 기획한 세트이다.

대표 상품으로 꾸준히 사랑받는 재래구이김과 프리미엄 유기김, 그리고 새로 출시된 고소함이 풍부한 김자반으로 구성된 '고메이 494 프리미엄 김 3종 세트'와 전북 고창의 국산 참.들깨를 저온에서 착유하고 깨끗하

게 정제한 '고메이 494 국내산 참.들기름 세트' 등 다양한 PB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명절 인기 상품인 '강진맥우' 선물세트도 눈길을 끈다. 강진맥우는 갤러리아가 독점으로 운영중인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로 발효숙성 마걸리를 먹이는 방법으로 사육해 부드러운 육질과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대표 선물세트로 '강진맥우 명품세트', '강진맥우&한우 클라보 세트' 등이 있다.

■ 20만~30만원 이하 농·수·축산 선물세트

갤러리아는 20만~30만 원 이하의 농·수·축산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확대 구성했다. 한우, 자연송이, 굴비 등 총 73세트를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는 '자연송이버섯세트', '강진맥우&한우 클라보 세트', 사인머스캣, 시과, 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으로 구성된 '갤러리아프리미엄 혼합 과일 세트', '완도 전복 세트' 등이 준비되어 있다.

■ 갤러리아몰, 카카오톡 선불하기 등 온라인 선물세

트

온라인 채널을 통한 수요 증가로 정육, 청과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을 강화했다. '우수산지 명품 한우', 'LA갈비 세트', '한라봉 사과 배 세트', '송의향고 버섯 세트', '영광굴비 세트', 등 총 6품목의 다양한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현금 대신 선물하기에 부담이 없는 갤러리아상품권은 쇼핑, 식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어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다. 3종 카드센터 내 상품권 테스크에서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권 종이 판매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갤러리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설 선물세트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20일 까지 설 날 선물 세트 30/60/100/200/300/500/1000/2000만원 이상 구매 시 5% 갤러리아상품권을 지하2층 고메이494 서비스데스크에서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송병배 기자



●정정●

제2차 본회의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1일
오전 10시
『제275회 대
전 광역 시 의
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 참석.

대전시대 상상발전 페스티벌



박희조 동구청
장= 1일 오후
4시 유성구 호
텔 ICO에서 열
리는 대전시
대 상상발전
페스티벌 참석.

리면 기탁식



이동한 부구청
장(중구청 장
권한대행)= 1
일 오전 11시
중구청 구민
사랑방에서
열리는 '하모니
봉사단, 저소득
가정 리면 기탁식' 참석.

떡국떡 나눔행사



서철모 서구청
장= 1일 오후
2시 서구청 지
하 다목적실에
서 열리는 서
구직접봉사
회 떡국떡 나눔행사에 참석.

상상나눔 후원금 기탁식



정총래 유성구
청장= 1일 오
후 4시 구청
구정공유방
에서 열리는
상상나눔 후
원금 기탁식에 참석.

공모사업 설명회



최종규 대덕구
청장= 1일 오
후 2시 송촌도
서관에서 열
리는 대덕구
공동체지원센
터 공모사업 설명회에 참석.

동구희망저축계좌II 기입자모집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근로를 통한
탈번곤을 드는 희망저축계좌II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II'는 근로를 통한 저
소득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매월 10
만 원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이다.

신청을 위해선 근로 활동 여부와 소
득 기준, 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을 충족
해야 하며, 3년 동안 지원 요건 충족 시
최대 36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소
득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
청 기간 내 주소지 등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II
사업은 취약계층의 자립을 드는 다양
한 복지정책 중에서 근로를 장려하고
동시에 자립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대상자들이 혜
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각종 홍보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등 행정
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생활보장과
(042-251-4499)로 문의하거나 동구
청 누리집(www.donggug.go.kr) 공지사항
을 참조하면 된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지난해 38,915명 혜택 · 68명 위험상황 방지 · 468명 신규고용 효과

사회적약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



수 있었다.

특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요양돌봄, 영양급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기복지센
터 등 36개 민간 제공기관을 공모
신청했고 사업추진을 위해 468명
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뒀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통합돌봄
사업의 수혜 범위를 넓히고 서비
스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만 지원했던 무료 서
비스를 80% 이상 전 시민으로 확
대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
하여 ▲기준 중위소득 81%~120% 이하는 본인 부담
50%, ▲120% 초과자는 전액 자
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다.

또한 노인 및 장애인 비대면 돌
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기존 500대에서
1,000대로 확대 보급하며, 가정방
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지원센터 또는 재택의
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집
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진료 서
비스도 전자기록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지
난해 돌봄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0대로 확대 보급하며, 가정방
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지원센터 또는 재택의
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집
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진료 서
비스도 전자기록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지
난해 돌봄 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0대로 확대 보급하며, 가정방
문 진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의료 지원센터 또는 재택의
료센터를 설치하고 의료진이 집
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진료 서
비스도 전자기록으로 확대할 계획
이다.

김태선 기자

애써주신 돌봄 종사자 등 관계자
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도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지역 사
회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사회통합돌봄이 필
요한 시민이나 주위에 돌봄이 필
요한 시민이 있을 경우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담
당자의 현장 방문, 지역케어회의
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일시 재
가, 영양급식 등을 지원하는 5대
기본돌봄서비스 ▲인공지능돌봄
로봇 등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
공하여 위험 사항을 미연에 방지
하는 스마트돌봄 ▲자택으로 찾
아가는 방문 건강의료 서비스 등
공공사업 등이다.

또한 36개 사회·노인·장애인
인복지관과 연계한 민관협력 돌
봄체계 활성화 사업으로 ▲밀반
찬 지원, 인전용품 설치 및 소독
등 일상생활 지원 ▲원예프로그램
판, 치매 예방 미술치료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존 돌봄서비스의 사
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김태선 기자



(주)장원토건 이대열 대표 범죄예방 사업 지원 월 1백만원 정기후
원 약정 체결

(주)장원토건 이대열 대표이사(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부회장)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을 위해 한
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와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에 매월 1백만 원을 후원하
며, 지원된 금액은 전액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
호사업에 사용된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범죄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정기후원에 참여할 개인·단체·기업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자정기
부금단체로 소득세법에 의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
하다. 문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042-581-0705)



나눔명문기업 22호

(주)식화 취약계층 아동에 1억원 헌금하고 나눔명문기업 기업
(주)식화(대표 최석화)가 지난 31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유재욱)를
통해 대전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성금 1억원을 기탁하고 고액법인 기부자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대전 22호로 가입했다. 기탁된 성금은 대전 지역
의 이동복지시설을 통해 양육시설 아동 지원, 자립준비청년들의 인정된 자립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선정 운영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
(청장 강민희) 대전제대군인지원
센터는 2024년 중·장기복무 제
대(예정)군인의 성공적인 사회정
착과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대군인 전문교육기관 위탁교
육과정을 선정하고 연중 운영한
다고 31일 밝혔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대전·세
종·충청남·북도 소재 교육기관
으로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실시
계획서를 접수받아 23일 위탁교
육과정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송병배기자

중구, 설 명절 대비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근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이동한)

는 설 명절을 앞둔 31일 오전 구
청사 본관 입구에서 음주운전 근
절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
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동한 권한
대행과 간부공무원, 대전중구공
무원노동조합 위원진 등이 참여
해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품수수 주의 및 음
주운전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청
렴 헌장과 협약서를 배부하고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음주운전 근
절!'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활

속 청렴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명절 분위
기애 편승해 자자 잘못된 행동으
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음주
운전 근절 및 청탁금지법 준수 등
건전하고 청렴한 명절 보내기"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구는 설 명절 기간 공
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찰 활
동을 강화하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사회가 앞장서
서 실천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

(042)538-3030

daejeontoday.com

찾아가는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업무 협약식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건강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중구지회』

일시 2024. 1. 30.(화) 14:00 장소 중구청 구민사랑방



의 집점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직
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안
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
행되었다.

대상은 중구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으로 수요
조사 시 어린이집이 구청에 신청

하면 전문 상담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심리지원 교육과 각종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
다.

이동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보
육환경 조성으로 안심하고 아이
를 기를 수 있는 중구가 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대덕구 "찾아가는 배달강좌 학습자 모집합니다"

오는 6일까지 평생학습 홈페이지서 선착순 접수

대덕구(구청장 최종규)는 내
달 1~6일 2024년도 1회차 배달
강좌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덕구 배달강좌'는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수강생에게 강
사가 찾아가서 평생학습을 제공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는 올해
3~11월 총 3회차 운영을 위해 회
자별 △기초문해 △시민참여 △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60개 강
좌를 등록해야 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습자는 대
덕구 평생학습 온라인 회원가입
을 해야 하며, 학습자 대표가 강좌
신청을 하고 수강 신청 기간 내 나
머지 학습자 등록까지 마치면 된
다. 단, 학습자 대표는 반드시 대
덕구민이어야 한다.

모든 강좌는 선착순 접수로 조
기해 마감될 수 있다. 교육 분야
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홈페이지
에서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4년 대덕구 배달강좌 학습자 모집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042-608-6493)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규 대덕구청장은 "우리 대

덕구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는
물론 다양한 강의를 제공해 '평생
학습 도시 대덕'을 만들어 가겠
다"라고 밝혔다.

(042)608-6493

●정정●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



김태 흠 충남 도지사는 1일 오전 11시 도청 광장에서 열리는 회망 2024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

업무협약 체결



김자철 충남 도교육감은 1일 오후 2시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아산시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 충남도청점 개점식



조길연 충남도 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1층에서 하나은행 충남도청 점 개점식에 참석.

행정역량 강화교육



최재구 예산군 수= 1일 오후 4시 출사홀에서 열리는 2월 월례모임 및 행정역량 강화교육에 참석.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이옹록 흥성군 수= 1일 오후 1시 30분 은하면 마을단위 민생현장 방문.

세종시 설 연휴 종합대책 시행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모두의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된 것을 고려해 물가안정 대책과 민생안정 대책을 더욱 강화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월 8일까지 3주간 물가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가동, 물가 합동지도 점검반 운영, 16개 성수품 관리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상상장터 실맞이 특관행사, 시회적 경제 실맞이 온라인 특별기획전을 열어 전 상품 30% 할인 등 다양한 지역 상품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 명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 설 명절 지원금 지급, 결식 우려 아동(945여 명) 급식지원, 취약계층 5,606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86개소에 특별난방비를 지원한다.

저소득가구와 독립유공자에게는 설 명절 위문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온기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나눔·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설 연휴 시민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9개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은 연휴 기간 재난안전, 도로·교통, 쓰레기·급수 관리, 환경오염감시, 화재 특별경계근무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대응한다.

최민호 시장은 "설 연휴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불편 없이 편안하고 따뜻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디지털 산업 육성·활성화 기본계획 나왔다

충남도,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힘쎈충남' 비전 설정… 2026년까지 1393억원 투입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디지털(ICT·SW)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중기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최종안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힘쎈충남'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산업분야 정책운영의 기본을 마련과 중점 추진 정책사업 분야를 발굴·유지·확산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1393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31일 도청 회의실(510호)에서 전형식 정부부지사 주재로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남도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최종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목표는 △디지털 분야 산업체 종사자수 2021년 기준 4만 6000명에서 2026년 6만명으로 확대 △특허출원건수 2022년 70건 대비

2026년 120건으로 확대 △2026년 누적 3만명 인재양성이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전략과 재원투자 규모는 △디지털산업 신기술 개발 및 혁신지원 12개 과제 589억 9400만원 △디지털 혁신 기반조성 9개 과제 533억 4300만원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 구축 5개 과제 269억 7100만원 등 총 26개 중점 추진 과제 1393억원이다.

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전통적 제조업분야는 전국 3위권의 지식재산권(특허)을 출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ICT·SW)의 경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련 분야 학과 재적생 규모도 2만 9400명으로 전국 4위권이지만 도내 기업의 주요 경영 애로사항이 '신규인력 수급' 일정으로 구

인·구직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다.

이에 도는 해당 분야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시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유재룡 산업경제실장을 단장으로 도 관련부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30여 명 규모의 기본계획 수립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 담임은 그동안 10여 차례 온·오프라인 실무회의와 전문가

및 학계·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3차례의 전체 대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 말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도는 최종안의 실행력 담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진흥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충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추진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지원, 기반조성,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기관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유해 중점 과제별 추진 속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한 최종안을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장기 전략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의 대체계획으로 활용하면서 국가 디지털정책과 도

여전에 적합한 정책사업을 연계·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전형식 부지사는 "이번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1차 계획으로 우선 디지털 분야 공급 기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장지원·인재양성·기반조성 3개 분야를 입체적으로 치밀하게 추진해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 충남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본격 운영

예산군농기센터, 미세먼지 저감·산불예방 등

예산군 농업 기술 센터(소장 이순주)가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

영농 부산물 인천처리 지원 사업은 영농 부산물(과수 전정 가지 등) 파쇄를 통한 퇴비 활용으로 농업 분야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 저감 및 지원 순환 실천을 방지해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은 2개조 6명으로 구성되며, 농업 기술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안전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농업 기술 센터 관계자는 "농 경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잔가지를 토양 퇴비로 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예산 대상자 중 영농 부산물 처리 허망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 복지 센터 또는 농업 기술 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지정 장소에 부산물을 모아두면 파쇄 지원단이 지정된 날짜에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진행한다.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은 2개조 6명으로 구성되며, 농업 기술 센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안전하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문화누리카드 1일부터 발급

세종시, 1인당 연간 13만 원 지원…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 분야 활용



활동 분야에 등록된 전국 가맹점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하다. 문화생활 시 각종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추후 지역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관처인 세종시 문화재단은 70대 이상 고령자 등 이용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 주문을 통한 가맹점 상품 구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카드 소지자는 올해 충족 시 자동 재충전되며 신규 대상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unuri.kr) 또는 세종시 내 24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세종시보건소 "간편한 모바일 앱으로 건강관리하세요!"

앱 자가 기록 통한 건강·운동·영양 등 비대면 건강관리 제공

세종시보건소(소장 강민구)가 2월 1일부터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모바일 앱에 자가 기록한 개인별 건강정보와 스마트워치(활동량계) 연동을 토대로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비대면으로 건강상담, 운동지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는 만19~64세 성인으로 직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가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

뇨·이상지질증증을 진단받지 않고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 처방을 받지 않은 비질환자(질환을 보유하지 않은 자) 중 건강위험 요인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우선 선정한다.

건강위험요인 판정기준은 ▲혈압(수축기혈압 130~140mmHg 또는 이완기혈압 85~90mmHg) ▲공복혈당(100~126mg/dL) ▲허리둘레(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 ▲중성지방(150~200mg/dL) ▲HDL-콜레스테롤(남자 40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이다.

건강위험요인 판정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접수 기간 내 조기 미감 될 수 있으며 27일 대상자는 오는 5월에 모집할 계획이다.

강민구 보건소장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평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 할 수 있다"며 "생활 습관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만성질환 발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건강증진실(☎ 044-301-2134)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박인호 선생 선정

춘암 박인호 선생의 호국정신 널리 알려

예산군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 운동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2월 이달의 독립 운동가'로 춘암 박인호 선생을 선정했다.

춘암 박인호 선생(1855.2.1.~1940.4.3.)은 1914년 천도교 주가 3·1 독립 운동의 중앙 지도체 49인 중 한 사람으로 활동했으며,

적지주가 돼 조직을 활용한 개화 운동의 보급과 독립 사상 고취를 위해 활동했으며, 정부는 1990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달의 독립 운동가 선정'은 군 자체 사업으로 국가 보훈부가 선정하는 한국의 독립 운동가 중 예산 출신 독립 운동가를 매월 선정해 포스터를 제작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훈 회관, 군청 누리

집에 게시해 독립 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호국 정신을 확산 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 많은 독립 유공자들이 활동한 고장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 유공자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후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매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출범

예산군 삽교읍, 2년간 지역 발전·주민 복리 증진 활동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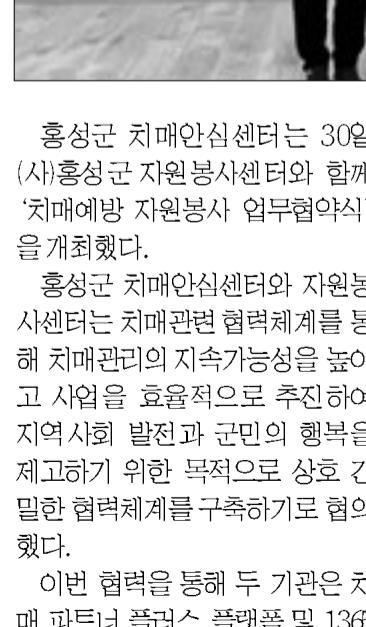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각종 캠페인 및 행사 개최 시 상호 인력지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정식 보건소장은 "치매 예방과 관리는 지역사회에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촉된 47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은 올해 1월 19일부터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쳐게 된다.

이종선 삽교읍장은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모든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삽교읍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위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치매예방 자원봉사 업무협약식

자역사회 치매 예방 및 안전화 고축을 위한 치매안심 자원봉사 업무협약식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30일 (사)흥성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치매예방 자원봉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흥성군 치매안심센터와 자원봉사센터는 치매관련 협력체계를 통해

우리/동/네

천안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 견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취약계층 이웃돕기 나눔 동참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지사장 정민희)는 31일 천안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천안시복지재단이사장 이운행에 전달했다.

정민희 지사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나눔에 동참하고자 마련한 후원금이니,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위한 전기안전 점검, 환경 개선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천안=김정환기자



수신면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지부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지키기’

천안시 수신면(면장 이관희)은 31일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지부(회장 박만규)가 ‘우리동네 어르신 건강지키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신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25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형물리치료사협회 충남지부가 실생활에 도움 되는 간편한 쉘프 물리 치료법을 실연했다. 또 이·미용봉사자들이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박만규 회장은 “노인 인구 비중이 큰 수신면에서 어르신들 건강 증진을 위해 행사를 하여 보람차다”며 “소상공인들의 작은 재능들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듬고 보살펴 따뜻한 천안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수신면장은 “수신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지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 천안지부는 31일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 명절 온정의 라면 나눔 쌍용3동 행복기움지원단, 설명절 온정의 라면 나눔 쌍용3동 행복기움지원단(단장 신윤숙)은 31일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 명절 온정의 라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복기움지원단은 저소득층 중 거동이 불편한 이동이 어려운 100명을 선정해 100박스의 라면 나눔을 통해 인부를 확인했다.



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 ‘2024년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사(지사장 문상식, 이하 ‘충남지사’)는 지난 30일 충남지역 40여개 장애인 단체,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애인고용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 접차블록 등서 견인

천안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무단 방치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행차로, 횡단보도, 접차블록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악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곳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즉시 견인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키보드 대여업체에 견인료 1만5,000원, 보관료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형행차 등이

해당한다.

현재 천안에서는 12개 업체가 8,610대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는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설치했으며 안전수

최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조장영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과 함께 올바른 개인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를 이용하는 경우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2인 탑승, 음주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은 범죄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 시에는 부모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륜자·개인형이동장치(PM)·자전거 등 이른바 ‘두바퀴 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남 천안·아산권에서 3년 새 사고 발생률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천안·아산권에서 발생한 두바퀴 차 사고는 총 13건인 데 비해 2021년 30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2022년에는 49건으로 집계됐다.

천안=이정복기자

정

월례모임



박상돈 천안시장
= 1일 오전 9시
봉서홀에서 열리는
2월 월례모임에 참석.



천안시,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스타공무원 8명 선발

천안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8명을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스타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각 부서,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례 총 15건에 대해 1차 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개인 부문 4개, 팀 부문 2개 사례를 최종 선발했다.

개인 부문에는 ▲산림휴양과 송민하(최우수) ▲서북구 건설과 조재현(우수) ▲동남구보건소 임혜정(장려) ▲동남구 세무과 김대경(장려) 주무관을 최종 선정했다.

팀 부문에서는 ▲서북구 세무과 강태우·신현이(우수), ▲동면 유재철·도시재생과 황재현(우수) 주무관이 선발됐다.

개인 부문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된 송민하 주무관은 50년 넘게 단절되었던 천안 북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을 추진하면서 연속압출 공법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

천안시는 선정된 8명의 공무원에게는 상패, 포상금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을 통해 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이 한 단계 성장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추모공원

설 연휴기간 정상 운영

천안도시공사(사장 한동희)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천안 추모공원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장로의 경우 설 당일에만 오전 10시, 오후 12시 30분 총 2회 운영하고 그 외 기간에는 정상 운영한다. 커피숍과 식당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며, 봉안시설은 사전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

연휴기간에는 1시간 앞당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추모실 15개를 개방하고, 음식물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원활한 추모실 운영을 위해 이용 시간은 15분 이내로 권장한다.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

사업 시군 평가 5년 연속 A등급

천안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상돈)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5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생활체육사업 국·도비 보조금 3,3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 및 동호인 단체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천안사랑카드’ 2월 한 달간 월 50만원 10% 캐시백 상향

시민 가계 부담 완화, 소비 진작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기대

천안시가 2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급률을 10%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캐시백 지급 한도와 지급률 상향 조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가 상승과 난방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캐시백 지급 한도와 지급률을 상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천안사랑카드가 시민과 소상공

시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해 지역경제 활성화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설 명절을 앞두고 캐시백 지급 한도와 지급률을 상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천안사랑카드가 시민과 소상공

인을 비롯한 모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펼친다고 31일 밝혔다.

설맞이 환급행사는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30여 개 점포에서 진행한다. 이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

다.

국내산 수산물을 6만8,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4,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 구매하면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명세서가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환급 창구에 증명하면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15개 협업기관 교육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활성화 위해 15개 협업기관 종사자

천안시는 지난 30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개 협업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협업기관은 천안의료원, 해맑은 한의원, 천안재활병원, 새로나병원, 천안시의사회, 천안시야사회, 단국대학교치위생학과, 천안시한의사회, 천안주거복지센터, 작업치료사협회 충청지회, 서소사랑노인복지센터, 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즐거운밥상, 충남동부돌봄센터 등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퇴원환자의 범위와 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등급자 등 노인맞춤돌봄 중점돌봄군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등에 대해 안내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장기요양재기금여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사(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진료, 간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천안의료원과 해맑은 한의원이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더욱 탄탄하고 든든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협업기관과 함께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화 노인복지과장은 “천안시

가로와 세로 각각 5cm의 규격에 허가면 이용·돌출·지주이용·옥상간판 등 허가·신고한 고정광고물로 스티커형 인식 표시를 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를 교부할 때 배부한다.

실명제 스티커형 인식 표시에는

천안=김정환기자

천안시, 서북구 2월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표시 배부

무분별한 불법간판 난립 예방, 광고물 관리자의 책임감 고취

천안시 서북구(구청장 이종백)는 2월부터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 인식 표시를 배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날로 증가

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주·광고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해 깨끗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천안시는 12개 대학과 함께 5월

중으로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분광장 일원에서 대학 어울림 페스티벌의 진행 방향,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12개 대학, 9만여 명의 대학

생이 있는 ‘대학도시 천안’을 널리 알리고, 대학과의 연계 강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천소방서, 전통시장 화재 예방 현장지도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는 지난 29~30일 비인, 판교 재래시장을 방문해 현장지도에 나섰다. 이번 현장지도는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 경각심을 상기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청양소방서, 화재 안전 취약기구 인력풀 구성 운영 청양소방서(서장 진용만)는 지난 30일, 겨울철 전기안전관리 전문가 위주 화재 안전취약기구에 대한 인력풀을 구성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청양군 교육리, 백천리 소재 노인기구의 화재취약시설 전기점검 실시를 위해 전기안전관리 전문가를 화재안전취약기구 점검인원으로 위촉해 취약기구 전기점검 등을 진행했다.



대전보훈청, 독서 통해 제대군인 강연자로 성장하는 비법 전수 특강 국기보훈부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민희) 대전제대군인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대전보훈청 신체호흡에서 중·상기 제대(예성)군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팀에서 '24년 달라지는 제대군인전직자 원제도를 소개하고, 이어 최영웅 작가(육군 소령)가 직접 효과적인 독서 방법으로 제대군인다면 누구나 강연자 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보령소방서,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한 환경 조성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한다고 밝혔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 설 명절 연휴 기간 화재 건수는 2021년 3건,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며 2024년 설 명절도 '화재발생 0건'이 목표다.

이번 설 명절에도 귀성객이 불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대중이용시설(대형마트, 터미널 등)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요양 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통시장 합동점검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배부▲ '불나면 살펴서 대피' 아파트 대피계획 캠페인 ▲대중이용시설, 요양시설 등 현장 지도 ▲대행 전광판 및 LCD 활용 영상 송출 ▲설 명절 '주택용소방시설 선불하기' 집중 홍보 등이다.

보령=김태선기자

공주소방서, 화재예방 홍보활동

반포면 산불발생 우려 지역인 암자 및 기도원 등 방문



공주소방서(서장 류일희)는 1월 중 반포면 산불발생 우려 지역인 암자 및 기도원 등을 방문해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관할 소속 동화사 119안전센터장(김기호) 주관으로

반포면 남성의용소방대장(노재왕), 반포면 여성의용소방대장(박원순)과 함께 소화기 및 단독경보

형감지기 미설치 대상에 대해 감

지기 설치를 시행하고 소화기 사

용법 및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행 시 인화물질 후대 금지와 농부산불 또는 논·밭두렁 태우기 사전 신고 홍보에 힘썼다.

공주=정상범기자

작년 470명 해외도피사범 붙잡은 경찰

경찰청 '죄종별 공조' 중심으로 국제 공조 더 강화한다

경찰청은 최근 미약, 금융사기, 사이버범죄 등 범죄의 증가로 국내 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죄종별 공조' 중심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은 '인터넷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국경범죄에 대해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범행과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넷과 같은 국제 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고 국제 공조 강화 배경을 밝혔다.

인터넷 기금 프로젝트는 협약기

회 대응을 위해 인터넷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법집행기관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 상당의 인터넷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를 하고 있다. 인터넷 기금 사업은 ▲경제범죄(HAECHI) ▲도피사범 검거(HA SEA) ▲마약범죄(MAYAG) ▲아동성착취물(FACE-Asia) ▲지적재산권 침해(I-SOP)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찰청은

I-SOP 기금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인도네시아 경찰 협력 합동 작전을 펼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국내외 방송·영상 콘텐츠(10만 8000여 편)를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운영자와 방송 송출처 등 3명을 검거하고 모든 서비스를 폐쇄하기도 했다.

향후 경찰청은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 대해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일부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인터넷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 전산 기반 시설 범부처 공유에 드는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넷 전산 기반 시설을 허망하는 국내 법집행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시급히 자료 공유가 필요한 부처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우선 개방·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은 인터넷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넷 사무총국이 운영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정복기자

설맞이 농·특산물 및 지역

상품 직거래 장터 운영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부터 8일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우수 농·특산물 및 지역상품 직거래 장터'를 연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고, 도·농 간 상생을 위해 마련됐으며 64개 농가 및 업체가 참여 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대전지역을 비롯한 옥천군 등 인근 11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과, 배, 밤, 북어포 등 우수한 제수용품을 시장 가격보다 10~20% 이상 싼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사회적·마을기업 제품도 함께 전시·판매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아산소방서, 설 명절 대비…관서장 직접 방문

화재 취약 대상 현장 점검 지도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30일, 설 명절 대비 화재 취약대상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관내 주거용 컨테이너와 노유자 시설(영인면 소재) 메종드로제를 관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점검·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지도에서 김오식 서장은 화재 사례 전파, 난방기구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소방서,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하고자

겨울철 빙판길 낙상 주의 당부



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균골격계와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낙상이라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낼 수 있으며, 한번 다치면 치료 기간 중 근력 감퇴 및 합병증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 시 눈·물 얼음 등을 피해 경시가 급하지 않은 길로 이동하기 ▲활동 시에는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장갑을 착용하기

겨울철은 밤사이 내린 눈이 녹아 생긴 물이 얼어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고 낮은 기온으로 몸이 위축·경직되어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대한 반응이 늦어 부상으로 쉽게 이어질 수

당진=최근수기자



대전동구새마을회, 2024년 제 1차 이사회 개최 대전동구새마을회(회장 임진수)는 지난달 30일 오후 동구새마을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제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실적 보고 2023년 세입 세출 결산(안) 2024년 사업추진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 의결했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문제 대응

충남교육청, 2024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 확대



고, 이를 목격한 1t 치량 운전자 B씨가 사고차량 주변에 서 있다가 뒤이어 달려오던 16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4.5t 화물차 운전자 A씨와 1톤 화물차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 모두 숨졌고 16톤 화물차 운전자 C씨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

졌다.

경찰은 4.5t 치량이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진 상황에서 1t 치량 운전자 B씨가 사고차량을 살피며 접근해 있다가 16톤 화물차 운전자가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운전자 2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복기자

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유·초 5시간, 중 6시간, 고 7시간을 운영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이해와 대처」 교육자료를 학교별·시수에 맞게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예산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휘슬' 개시

과태료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 무료 제공



예산군은 1일부터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애플리케이션 '휘슬' 서비스를 시작한다.

'휘슬'은 전국 70여개 지자체와 연계한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로 운전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애플리케이션이다.

군에 따르면 '휘슬'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면 불법 주정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단속 구간에 주정차한 차주 또는 기업자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 등으로 단속 지역임이 안내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

폰 휘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거나 설치가 어려운 이용자는 휘슬 콜센터(1599-6270)를 이용해 가입하면 된다.

휘슬은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외에도 과태료 조회 및 인근 주차장 검색 등 운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서비스 도입을 통해 사전 안내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교육부, 2024 글로컬대학 7월 중 10개교 선정

혁신안 제시하는 10곳 내외의 비수도권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

교육부가 오는 3월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을 받은 뒤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한다. 올해는 작은 규모의 대학이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만들어 대학 간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오는 2026년까지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대학 30곳을 선정해 학교당 5년간 매년 평균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안을 제시하는 10

곳 내외의 비수도권대를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은오는 3월 22일까지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4월 중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학의 특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본지정평가 미지정 대학(5개교)이 혁신방향을 유지·보완한 경우 올해에 한해 예비지정대학 지위를 인정한다. 2024년 예비지정 평가를 통한 신규 예비지정 규모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15개를 유지해 올해는 총 20개 이내의 대학을 예

비지정할 예정이다.

예비지정평가 시 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을 구성해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 심사한다. 글로컬대학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혁신 전략을 강화해야 하고, 예산 등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혁신 과제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혁신기획서에는 학생·산업계 등 수요자의 요구와 중앙부처의 정책 및 제도 변화가 고려된 대학교수의 혁신 비전 및 과제가 핵심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예비지정대학과 내용 공개에 동의한 대학의 혁신기획서는 예년과 같이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들이 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혁신 모델을 제안하는 등 대학 사회 전반에 혁신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많은 대학들이 지난해에 제시한 혁신 모델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혁신 모델을 제안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은 "글로컬대학은 지역 밀착형 혁신을 기반으로 그 지역의 세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학이 돼야 한다"며 "대학 혁신과 지역발전의 선도자가 될 대학을 염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복기자

대전교육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명에 위촉장 수여

'위(Wee)센터 정신과 자문의' 운영



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위(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사례회의 자문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위(Wee)센터 정신과 자문의'(이하 자문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자문의 사업은 올해로 7년째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Wee)센터 자문의로 위촉된 정신과 전문의는 학교로 찾아가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자문과 교육

김정환기자

천안교육지원청,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의 진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발 완료



를가·의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고,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료로 했다.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서류심사에서 지원자의 자격 요건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평가하고,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소신과 역량을 평가했다. 경찰위원회를 제외한 41명을 선발 완료했으며, 경찰위원회는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동남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을 대상으로 인사이동이 마무리 되는 2월 중에 위촉할 예정이다. 선발된 십의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활동하게 되며, 연임 할 수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아산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담당자연수 실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종녀)은 2024년부터 2년 동안 학교급식대책심의회를 진행할 심의위원 선발을 지난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했다.

선발 대상은 충청남도 천안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천안관내 초·중·고 교원(퇴직교원 포함), 학교급식관련 전문가, 법



놀이와 숨이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유치원 돌봄교실 현장에 기다



충청남도교육청 출신 작가 도서 238권 전시

충청남도교육청 남부권역 학교 도서 전시 3층 전시 공간

총 238권의 출판 작품을 전시하고, 출판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전시에는 출판 작품과 함께 출판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태안교육지원청, 종합청렴도 도내 1위

청렴인식진단 및 청렴정책 추진 실적 최상위 기관 달성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윤여준)은 지난 29일 종합청렴도 교육청 주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유·초·중·고를 포함한 793개 기관(학교)

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체계를 준용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자체로 실시한 '청렴인식 진단결과' 점수와 '청렴 정책 추진실적' 점수를 종합해 운영했다. 태안교육지원청은 위 평가항목에서 모두 최상위 점수를 받아 부부처 평가 분야

개선과 반부패 노력으로 교육공동체의 청렴인식 향상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은 "오늘의 성과는 태안 전 교직원이 청렴 의식을 갖고 청렴 흥보와 청렴 교육 등에 앞장선 결과"라고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김정한기자

충남교육청, 학교 통합 메신저 '충남이음' 본격 개통

도교육청 3만5천여명의 교직원 소통·정보교환, 업무경감 전망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월 30일부터 학교 통합 메신저 시스템인 '충남이음'을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충남이음'은 도내 3만 5천 명의 전체 교직원들이 대화할 수 있는 메신저로써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주요 간부 공무원의 사무실 근무 여부(재실, 부재증, 회의증)를 알려주는 재실등(在室등)을 메신저에 구현해 교직원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정보 교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사이동 시 사용자(조직도) 정보 자동 반영, 이모티콘 무제한 사용, 시각화된 메시지 등으로 학교 통합 메신저를 확장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접점 항목은 인체센, 쿠키센션 관리, 사용자 인증 관리, 불안전한 암호화, 정보 노출 등을 포함하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에서 제공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이드'를 준용한 접점 항목이다.

접점 외로 후 각 기관 누리집 당사자에게 상세 취약내역을 제공하여 약 한 달간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며, 이후 조치가 완료되면 조치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완벽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선기자

부여 규암초, 충남서 가장 청렴한 학교에 선정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2023년도 자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여 규암초등학교(교장 윤학중)가 1위를 차지했다.

규암초는 2022년도 청렴 인식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등 3년 간에 걸쳐 청렴 우수기관으로 연속 선정되었다. 이번에 충남 도내 80개 교육기관이 청렴 우수기관 교육 감표장을 받게 되며 규암초등학교는 모든 학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윤학중 교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해 "우리 학교는 모든 교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인정받은 성적표를 받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자

민하지 않고 더욱 청렴한 규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여=김성구기자

당진교육지원청, 예비 특수교육 대상 학부모 연수 실시

2024학년도 예비 유,초 학생, 입학적응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에게 교육정보 제공을 통한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입학 준비와 안정적 적응 지원을 위해 실시했으며, 한정초등학교 한아름 특수교사를

초빙해 '우리 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준비 check!'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했다.

연수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고, 막막했는데 전문가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입학 준비와 양질의 정보를 알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김희숙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부모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새롭게 출발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설 명절 우리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道, 다음달 2일부터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등 5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충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해양수산부와 함께 하는 '2024 대한민국 수산대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는 전통시장은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 화지중앙시장 · 강경대흥시장 ▲당진전통시장 ▲장항전통시장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행사부스를 방문하면 당일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



설맞이 홍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류 15억원 · 모바일 35억원 확대 발행

홍성군은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2월 한 달간 홍성사랑상품권을 50억원(지류 15억원, 모바일 35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성사랑상품권 발행 확대는 물가 상승으로 설 명절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함으로, 상품권 구매는 2월 1일부터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19세 이상부터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 상품권은 1인당 보유한도를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우체국 본점,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보령수협 남당항지점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발행액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완섭 경제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는 물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으로 활력 있는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한남대 보육시설 자립준비 청년 위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설맞이 홍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류 15억원 · 모바일 35억원 확대 발행

"자립을 준비하는데 전문적인 정보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남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전지역 후생학원, 혜생원, 정립원 등 보육시설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HNU 서포트 유

(Support YOU!)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한남대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보육시설 자립준비청년들이 자신을 분석하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직업흥미 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 맞

춤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8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소진 시 행사가 조기종료 될 수 있으며, 자체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 (www.fsalekt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진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충남 최초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 1호 탄생

서산한우, 탄소저감 실현 명품 한우 브랜드 시동

충남 서산시가 31일 관내 한우농가와 홍성 한우농가가 충남에서 최초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유기·무항생제·HACCP 축산물 등 정부 인증을 받은 한우농가 중 축산분야 탄소 감축 기술이 1개 이상 적용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선정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 한우 사육 농가는 ▲조기 출하 ▲분뇨 처리 ▲에너지 절감 등 탄소배출 저감 기술을 보유하면서 농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우 농가 평균보다 10% 이상 낮아야 한다.

이번에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랑 목장'은 서산시 고복면에 위치한 한우농가로 시가 주진한 '고품질 자가 퇴비 제

조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뇨처리 자원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한 선진농가다.

시는 충남 최초로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랑 목장'이 '서산 한우'가 고품격 명품 한우 브랜드로서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한 사례라고 판단한다.

한편 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저탄소 농업 기술 보급을 추진해 축산 농가의 인식 개선과 현장에서의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활동을 지속해서 장려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영농폐기물 수거 마을 수익이 쏠쏠

당진시, 수거보상금 · 한해 1천만 원 넘는 마을 수두룩

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마을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당진시는 새해 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윤리봉사를 통해 영농폐기물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당진시는 새해 영농교육에서 영농폐기물의 윤리봉사를 통해 영농폐기물 공동으로 모은 실적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해 송악읍 A마을이 가장 많은 수거보상금 1,514만 원을 받았으며, 석문면 B마을은 1,250만 원을 받아, 1,000만 원을 넘긴 마을이 5개소나 되며, 수거보상금은 개인들이 수거한 보상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육성위원회 열려



설맞이 홍성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지류 15억원 · 모바일 35억원 확대 발행

청양군은 지난 30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육성위원회를 열고 2023년 육성지원 성과 점검과 2024년 활성화 계획을 심의했다.

군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 확대와 고도화를 위해 4개 분야 1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석자들은 사

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지원, 인재 양성, 공공 구매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발굴하는 지역 맞춤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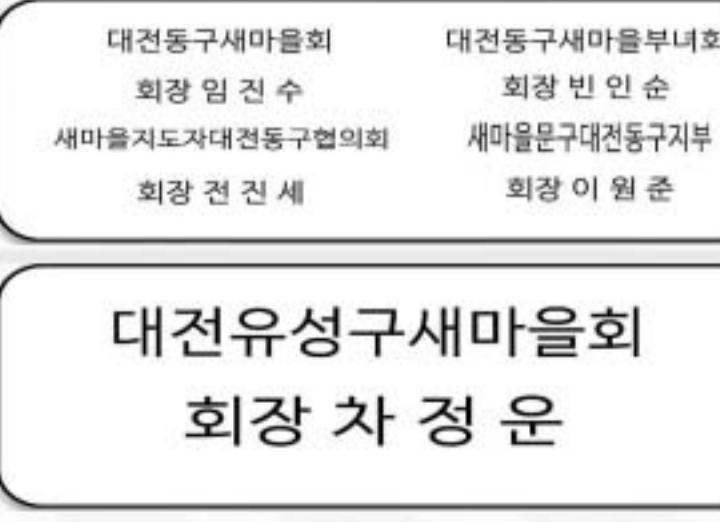
군은 2023년 전국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지자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을 만큼 사회적경제 기업 70개소를 육성, 2019년 26개소 대비 두 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냈다.

특히,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파운 유치, 사회적경제 창업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구축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했다.

이종필 부군수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회적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대학교, AI 딥러닝 기술기반 헬스케어 분야 활용 교육 진행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지방대학활성화사업팀은 지난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전대 지산도서관 THINK실에서 'AI 딥러닝 기술기반 헬스케어 분야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동정

외아마을 고택 현장방문



박경귀 아산시장
= 1일 오전 9시 노동자복지관대강당에서 열리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교육(시장님 특강)', 오후 2시 충남도청에서 열리는 '교육발전특구 관련 협약식', 오후 3시30분 외암민속마을에서 열리는 '외아마을 고택 현장방문'에 참석.

설 위문 방문



오성환 당진시장
= 1일 오전 10시, 1층 대강당에서 '당진시 인구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석, 오후 2시, 설맞이 관내 복지시설 위문 방문.

실용교육



가세로 태안군수
= 1일 오후 1시 30분 이원면 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이원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



온양5동 취약기구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

아산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인금선)가 29일 동절기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후원 물품 전달과 찾아가는 보건복지 방문상담(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가정방문 상담에서는 폭설과 한파로 인한 주거상태와 건강문제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대상가정의 난방상태 및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겨울철 신체활동, 식사 등에 대해 어려운 점은 없는지 대상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방문 대상자 어르신은 "요즘 눈도 많이 오고 날이 추운데 거동도 불편한 상황인데 동장님의 직접 안부도 묻고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인금선 동장은 "이번 폭설과 한파로 인해 관내 취약계층이 난방과 안전에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주민들이 체크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계획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광활구 유성대로 26-20 대전월드 T동

www.daejeontoday.com

건축 복합민원 담당자·업무 대행자 간담회

우/리/동/네

당진시, 건축 복합민원 구비 도서·체크리스트'를 직접 제작해 공유



당진시는 지난 1월 29일, 건축인 허가 담당 공무원과 건축·토목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당진지역건축사회, 당진시 측량협의회 소속 관계자와 함께 '건축 복합민원 담당자 및 업무 대행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원 신청 시 보완요청으로(구비 도서 누락이나 법규적용 오류 등)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않도록 '건축 복합민원 구비 도서 및 체크리스트'를 직접 제작해 공유했으며, 또한 주요 보완 사례 교육과 실무자원의 개선안 등을 건의하고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당진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주요 공약사항인 '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 빨굴 ▲행정절차 간소화 ▲각 부서의 자체적인 협의 기간 단축 등 지속해서 노력해 왔다.

2023년 건축 민원 처리 기간은 8.26일로 전년도(9.22일)보다 10% 이상 단축했으며 공장 건축 허가 처리 기간은 1388일로 '15일 이내 처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관계자는 "공장 건축허가 사전 컨설팅제 운영 등 기업 유치에 특화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당진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지정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지급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난해 7월 폭우 피해 주민을 위해 지정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을 군내 주택 침수 45가구에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지정 기부에 참여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청양군 자매도시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군민을 돕기 위해 최호권 구청장과 직원 214명,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영등포구 지부와 함께 8월 8일 청양군을 방문해 1,700여만 원을 전달했다.

또 재경 청양군향우회(회장 윤종훈)도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아픔을 떠나드리고 싶어 수해복구 지원 기탁했다.

김구태 미래전략과장은 "지난해 폭우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지정 기부를 한 영등포구청 직원과 재경 청양군 향우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수해 주민들이 따뜻한 설명절 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맞춤형 지정 기부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위원 추첨

실시간 방송 공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과 소통 행정 보여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30일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시민위원 총 22명을 선정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했던 제2기 아산시 참여

자치위원회 시민위원 추가 모집에서 총 22명을 뽑은 공개모집에 129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약 5.9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복지보건 분과는 1명 모집

제1기 참여자치위원회 임원단이 진행했다.

박 시장은 추첨을 마치고 "소수의 인원을 추가하는 위원 모집임에도 6:1에 가까운 경쟁률로 참여자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감사드린다"며 "아산시의 참여자치위원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제2기 참여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시정 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제2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는 오는 2월 5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20명의 시민위원을 주축으로 분야별 전문가 위원, 당연직 공무원 위원 등 총 217명은 12개 분과의 원탁 토의를 통해 임원단을 선출하고 올해 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김정한기자



찾아가는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당진시, 오는 2월 말까지 52개소 1200여 명을 대상 교육

당진시보건소는 오는 2월 말까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당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구강건강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의료시설 접근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방문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경로당 찾아가는 구강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침샘 자극 운동 ▲바른 칫솔질 ▲틀니 관리와 세척법 ▲임플란트 시술 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은 보건소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진행하며, 더불어 개인별 구강 상담을 통해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치아 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교육 후에는 구강 위생용품 세트도 함께 제공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년층의 구강건강은 건강한 삶과 직결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구강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관 합동 직무교육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30일, 청양읍 교월리 소재 고령자복지주택 담당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직무교육 시간을 가졌다.

시연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 담당자의 직무 관련 전문 지식 학습과 동시에 민관의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가 단단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을 선도하는 표준화된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고령자복지주택 내 통합돌봄센터와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집)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시스템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우리/동/네

굿뜨래페이 설 명절 전후 인센티브 시행

부여군, 최대 15% …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 · 설 명절 따뜻한 정책 시행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설을 맞아 전국 유일의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의 인센티브에 대해 2월 한 달 동안 기준 10%에서 5% 인상한 15%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

총전하면 받는 총전 인센티브는 기준 5%에서 10%로 상향하고, 월 총전 한도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충남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캐쉬백 개념의 소비 인센티브는 기준과 같이 5%, 월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부여군 만의 특징인 가맹점에게 주는 순환 인센티브도 3%, 월 200만 원 한도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소비자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에 출시된 굿뜨래페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충남 내 인구당 발행량 1위, 충남 평균 2배가 넘는 적극적인 정책 발행,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사

용량을 유지하면서 부여군 공동체의 균형 잡힌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박정현 군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오히려 기술 따뜻한 브랜드가 살아남는다고 한다. 차운디자일에서

도 따뜻한 어머니 품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 때문이다.”라며 “부여군민이 함께 만들어 따뜻한 감성이 담긴 굿뜨래페이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모든 가맹점 일반발행 사용 허용, 캐쉬백 형태의 소비 인센티브로 골목상권 보호 적극 시행, 정책 발행 확대 및 경제적 효과와 운영비 절감 등이 입증된 공동체 순환 지역화폐의 사용 권장 등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구기자

동정

농업인실용교육



박정현 부여군수= 1일 오전 11시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 1시 30분 정암면행정복지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 오후 2시 30분 세도면행정복지센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참석.

위문방문



김기웅 서천군수= 1일 오전 8시 30분 군청 4층 주민소통실에서 열리는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 대응 점검회의에 참석, 오후 9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2월 중월례아침모임에 참석, 오후 11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설맞이 사랑의 떡국 떡 나눔 행사에 참석, 오후 2시 성도원 외 2개소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이웅우 계룡시장, 2024년 면·동 연두순방 시작 이웅우 계룡시장이 지난 30일 두마면을 시작으로 4일간의 면·동 연두순방에 나섰다. 이 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방향과 정책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년 희망찬 행보 기대

초촌면 주민자치회, 둘레길 걷기 행사 열려

부여군(군수 박정현)의 초촌면 주민자치회(회장 김재범)는 지난 27일 주민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화리 뚝방길~응평1교를 왕복하는 ‘초촌면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초촌면 둘레길 걷기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아침 산책으로 주민들과 함께 둘레길을 걸으며 소통하는 면 대표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풀미를 보자기 장터’와 ‘리필스테이션’, ‘줍깅데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더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민들의 호응이 커졌다.

‘풀미를 보자기 장터’는 주민들이 손수 재배한 무농약 풍나물, 무, 상추 등의 잎여·파지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박하고 정겨운 농산물 장터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상생하는 공간이 되었다.

‘리필스테이션’은 가져온 재활용 용기에 세제, 섬유유연제를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였으며, 견기와 함께 쓰레기를 줍는 ‘줍깅데이’를 통해 내 고장을 아끼는 환경 친화 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초촌면 주민자치회는 2014년부터 부여군에서 가장 먼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어 타 주민자치회의 초석이 되어왔다.

지난 한 해, 회계 원리, 정리수납, 훈 바리스타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판제’, ‘손맛’ 등 8개의 교육공동체가 구성되었다.

또한 새해 해맞이 행사 개최, 작은 도서관 운영, 마을신문인 ‘풀미를 보자기’ 제작, ‘풀미를 이야기’ 도서 제작 등 주민 주도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귀농·귀촌인을 위한 ‘부여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에 ‘빈집활용 귀농인의 집’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9가구가 정착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시골 마을을 바라보는 편견과 인식도 개선했다.

이 같은 주민자치회의 행보에 올 한해도 주민들의 기대가 높다. 마을 길·산책길 조명 및 벤치(풀미를 의자) 설치, 노인분회 경로 위안 찬지 등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예산사업 3건, 정책 건의 사업 6건이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김재범 주민자치회장은 “김진년 새해 첫 둘레길 걷기 행사의 날씨가 화창했던 만큼 주민자치회의 앞날이 희망찬다. 너무 빠르지 않게, 주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맞추며 활동하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대진 초촌면장은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즐기기 때문에 초촌의 주민자치회가 선도역할을 하는 것 같다. 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신청

서천군, 연리 1%,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서천군이 2월 29일까지 자체 조성한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 종사자로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금은 연리 1%의 저리로 지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 또는 단체는 2억 원 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거주지로 관할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군은 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을 미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논산행복대학 강사 오리엔테이션 열려

어르신들의 학구열을 충족 시켜줄 탄탄한 준비



논산시시장 백성현(右)는 지난 30일, 행복대학 강사 78명을 대상으로 2024년 행복대학 운영방향 및 주요사업을 안내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행복대학은 비문해 성인에게 실시하는 문해교육으로,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복대학에서는 한글, 디지털, 안전, 금융, 치매예방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공예, 청의활동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별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논산행복대학의 주학습자가 어르신인 만큼,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적극적인 학습자 관리를 통해 건강한 논산행복대학을 운영할 계

획이다. 행복대학의 강사들은 어르신을 이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2일과 25일에는 논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하여 노인인권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한 상태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행복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이 당당하고 이를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란다”라며, “논산시는 어르신들이 꿈과 희망, 가치가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행복대학은 학습 참여자가 1,381명으로 연기가 뜨거웠으며, 2024년에는 나만의 책 만들기, 학습자 발표회 등 신규 사업으로 학습자들의 학구열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행복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논산 행복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산=김태선기자



제1차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 열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29일 군청 2층 선화만남실에서 군수를 비롯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역 실태에 따른 저소득층의 보장 확대를 도모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변동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연간 조사계획’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2024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심의·의결했다.

노태현 부군수는 “2024년 점체된 지역경제를 복돋우고 예산편성의 효과를 군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에 전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룡시 제13기 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계룡시(시장 이웅우)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4년도 제13기 계룡농업대학 도시농업학과 신입생을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40명 내외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활동으로 식량 안보 강화 및 생태환경 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농업 활동을 의미한다.

제13기 계룡농업대학 교육과정은 오는 4월 1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4회, 100시간 과정으로 ▲도시농업 ▲기초농업 ▲친환경농업 ▲지수농업 ▲텃밭 가꾸기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입학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며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입학원서는 3월 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2)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메일(cksg0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고, 합격자는 3월 22일 개별통보 및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2년 개교한 계룡농업대학은 그동안 38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도시농업 전문지도자로서 지역농업선도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번 간담회 설문조사 결과 반영은 물론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인턴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난방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작년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진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논산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실시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 원으로, 총 20대의 보일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정용보일러인 증시스템(www.ecosq.or.kr/boiler)에 도시가스(LNG)를 사용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교체하

는 가구 중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환경부에서 인증한 친환경 보일러를 선택해야 하며, 공공시설, 신축, 영업용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대당 60만 원으로,

총 20대의 보일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가정용보일러인 증시스템(www.ecosq.or.kr/boiler)에

정

입주 기념식



최원철 공주시장= 1일 오후 2시 공주 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열리는 청년 농촌살이 창업프로그램 선정 기업 입주 기념식에 참석.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김동일 보령시장 = 1일 오전 10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하고, 오후 1시 인천 중구에 위치한 BMW드라이빙 센터에서 자동차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텁방.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졸업식



이완섭 서산시장= 1일 오전 9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월례회의 참석, 오후 10시 30분 서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 졸업식 참석, 오후 1시 30분 부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부석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참석, 오후 2시 45분에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한국양봉협회 성금 기탁식에 참석, 오후 3시 시청 시장실에서 열리는 한국쌀전업농 서산시연합회 쌀 기탁식에 참석.

입춘방 써주기 행사



박범인 금산군수= 1일 오전 11시 10분 금산군청 민원지적과에서 열리는 입춘방 써주기 행사 참석.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 선정

보령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관내 거주 외국인 115명에게 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법무부가 인구 감소지역의 인구 확대와 구인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총 75명의 거주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올해 공모 선정으로 배정된 인원은 제조업 85명, 수박업 30명 등 지역우수인재 115명이며 특정 국가의 외국인이 배정 인원의 40%를 넘을 수 없다.

특히, 지역우수인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 기준제조업(특정업종)과 숙박업에만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 시범사업과 달리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참가가 제한되었으며, 최초 취업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요건이 신설되어 외국인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하고 현지 기업과의 균속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며,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보령에 실거주하고 자격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근무하는 조건이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보령의 뿌리사업인 제조업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비자 발급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

김태선 기자

이완섭 시장 “역동하는 시정, 펼칠 터”

지난 1월 26일 새해 시민과의 대화 성료… 15개 읍면동민과 지속적 소통 갖기로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15일 대신으로 시작한 새해 시민과 대화가 26일 석남동을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료됐다.

올해 시민과 대화는 새해 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시장의 세대로 소통의 막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번 대화를 위해 직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분들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이해를 돋기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실제로 건의사항에 대한 사진과 영상은 참석한 시민이 내용을 파악하기 쉬워 시민과 대화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시민들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신공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국제 크루즈선 취항,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 공원, (기정) 초록광장, (기정) 문화예술타운, 시청사 건립, 국도 29호선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 효자 시설로 건설될 자원회수시설 등 앞으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이 시장과 소통했다.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공원 추진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실시 설계 용역 후 2027년까지 가로림만 보전센터, 접박이 물범 관찰관, 갯벌 생태공원 등을 구성해 가로림만의 생태를 보전하기 위한 공원 조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통팔달 서해안 시대 물류의 중심지가 될 서산시로 도약하기 위해 이 시장은 해미국제성지와 세계

적인 축제가 될 해미읍성축제, 2025 아시아 조류 박람회, 국제 크루즈선 취항 등으로 서산시가 국제 도시임을 강조하며 하늘길·바닷길·땅길·철길 등 인프라 확보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숙원이었던 충남 최초 서산공항이 우여곡절 끝에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이며 오는 5월 8일 취항하는 국제 크루즈선을 지속해서 유치하고 서산시민이 들어간 첫 고속도로가 될 서산-영덕간 고속도로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산에서 시작해 13개 시군이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서신공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국제 크루즈선 취항,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가로림만 국가 해양생태 공원, (기정) 초록광장, (기정) 문화예술타운, 시청사 건립, 국도 29호선의 교통체증 해소 방안, 효자 시설로 건설될 자원회수시설 등 앞으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이 시장과 소통했다.

▲국토 29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장은 "지난해 대산~종합운동장 구간의 교통신호등에 감응 신호를 도입해 출퇴근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해 운전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며 "신호 체계를 야간에는 접박 신호로 바꿔 교통체증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지방도 649호선을 이미트 서산점 주변 잡종상가리로부터 국지도 70호선이 맞닿은 명천교차로까지 확·포장해 차량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정) 초록광장 건설에 대해 이 시장은 "중앙호수공원에 조성

할 조로광장은 기존 부지의 활용도를 3배로 확장해 시민의 여가 공간과 부족한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잔디광장과 황톳길을 조성하고 그 둘레에 물길을 둘러 족욕까지 가능할 수 있게 조성할 계획이며 지하와 1층의 복층 주차장은 500대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해 교통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고 답했다.

▲(기정) 문화예술타운에 대해 이 시장은 "석남동 일대에 임지 선정이 확정된 문화예술타운을 기반으로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의 후속 절차를 막힐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청사 건립에 대해 이 시장은 "서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청사가 일곱 군데로 나뉘어 방문해 주시는 시민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시청사의 배후지를 최종 임지로 선정했으며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 29호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장은 "지난해 대산~종합운동장 구간의 교통신호등에 감응 신호를 도입해 출퇴근 소요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해 운전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품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서산시가 세계를 향해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민과 대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직원에 대한 노고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구간은 5.3㎢로 총 사업비를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도는 3월 중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방향과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이 시장은 "그동안 큰 우려를 뒤로하고 순조롭게 추진 중인 양대동 자원회수 시설을 기피 시설이 아닌 우리 시의 효자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다"며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시에서 나온 가연성 쓰레기들을 처리하면서 94m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해 가야산과 간월호 등을 조망하고 전망대에 어드벤처 슬라이드와 같은 체험관광 시설도 갖추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폐열을 이용한 스마트팜 조성으로 농업 분야에도 활력을 주는 시설로 건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화 중간 지역현안과 시정방향 등 다소 무거울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위해 하모니카로 동요 '오빠 생각'과 '꽃밭에서'를 연주해 주민들의 박수와 호응을 받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15일 대산 대회장을 시작으로 석남동에서 마친 이번 시민과 대화를 통해 시민분들이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전해 받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발품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서산시가 세계를 향해하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민과 대화를 위해 건의사항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며 직원에 대한 노고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산 = 김정한 기자

우/리/동/네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최적의 활용 방안 모색

청소년수련관 등 6개 주요 시설 오는 10월 준공

공주시(시장 최원철)가 지역 청소년과 주민들의 문화·여가 거점 공간이 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신관동 구 KBS 공주방송센터 부지에 조성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이다.

총 사업비 226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644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총 6개의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미주침공간과 동아리실, 미루공간 등이 마련되는 생활화학센터를 비롯해 실내체육관과 사무실 등이 갖추질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들어선다.

여기에 세미나실, 음악실, 미술실, 조리실, 습관, 제과제빵, 정보교양교육실 등 시민들의 취미와 교육 등을 책임질 평생학습관이 2층과 3층에 조성된다.

청소년 전용 공간이 될 4층과 5층에는 특성화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디북적실, 동아리활동실, 상담실 등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거점 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선다.

시는 오는 10월 건축 공사를 마무리한 뒤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 30일 신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서 주민들은 현재 추진 상황과 시설별 운영 방법,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묻고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에게 꾹꾹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오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2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5월부터 각 사업 시설별로 최적의 운영 방법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과 함께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평생학습관의 경우 공주시민대학, 평생학습 특성화, 직업능력 향상 등 공주시의 평생 교육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원철 시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다양한 교육, 문화, 여가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고 활성화는 복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주 = 정상범 기자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 모집

상품 판매촉진·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등 활동



금산군은 인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 모집에 나선다.

홍보매니저는 인삼·약초 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 관광버스 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금산세계인삼축제 홍보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관광버스 인센티브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8000대 이상의 관광버스와 28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코로나19 이후 금산군 관광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

응시 방법은 2월 13일까지 금산군 인삼광장 20인삼약초관 2층에 위치한 금산군청 인삼약초과에 방문해 응시원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는 1~2월 서류 전형, 2차 외부 심사위원 면접 등을 통해 결정되며 2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산군청 인삼약초과 041-750-266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홍보매니저는 일선에서 금산의 대표 특산물 인삼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불 특성화의 일환으로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통하는 잡곡의 상품화가 이뤄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화 식량작물

이정복 기자

광고문의

(042) 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흥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배재대학교 · 목원대학교 ‘지산학 성과공유 ·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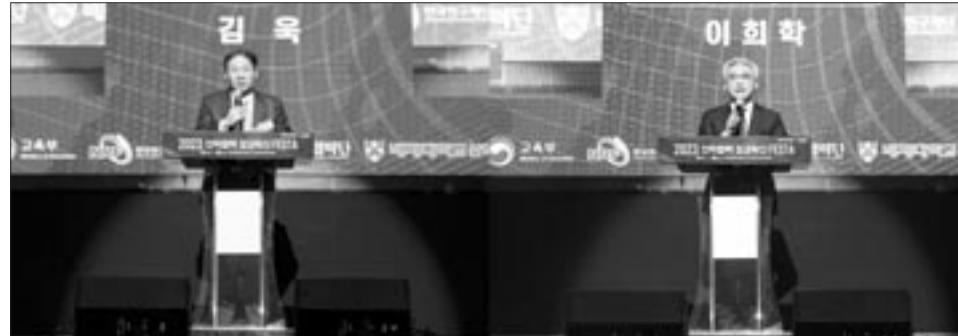
공동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 개최

목원대학교(총장 이희학)와 배재대학교(총장 김우기)가 지난해 진행한 산학협력 성과물을 공유하는 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대학은 지난해부터 공동 교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합건축전, 공동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공유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원대 산학협력단과 배재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9~30일 목원대 생활체육관에서 ‘2023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타(FESTA)’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고, 목원대 산학협력단과 배재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주관했다.

양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번 행사에서 지난 1년간 LINC 3.0 사업,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등 국책사업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행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소개했다. 이번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티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



원 원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김봉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실장 등 다양한 기관의 인사가 참석해 배재대와 목원대의 산학협력 성과확산을 축하했다.

양 대학은 9개의 구역으로 나눈 행정장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성과물, 특화분야 ICC 우수사례, 산학 공동연구 성과물, 지산학지자체 · 산업 · 대학 공유협업 성과물 등 100여점을 전시했다. 초청강연과 성과발표, 세미나도 진행해 대전 지역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 수립 및 지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프로그램, LINC 3.0

리크루트 노하우,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 성과공유, 지역기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역기반 ICC 공유협업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또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교수법 특강, 교직원 산학협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행사에서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현장실습 우수수기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을 시상했고, 산학협력 유공자 시상식, 기증회사 현판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양 대학의 산학협력 중장기계획 발표와 함께 ‘글로벌대학 3.0’ 사업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도 발표했다.

정철호 목원대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2023 산학협력 성과확산 페스티는 산학연관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산학 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우 배재대 총장은 “과거의 산학협력이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이었다면, 현재는 지방 정부의 다양한 공공기관, 협회, 기업 등으로 확대되며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배재대와 목원대는 물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대전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목원대는 배재대를 비롯한 지역대학, 기업 등과 산학협력에 대한 공유·협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목원대와 배재대가 산학협력 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기업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당진시,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 수첩 발간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상식 담겨



당진시는 관내 청소년 근로자들이 알아두면 힘이 되는 내용을 담은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당진시 노동인권 안내 수첩’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 수첩에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한 설명, 채용전·후 알아야 할 다양한 분야의 노동 상식이 담겨 있다.

또한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어 임금 체불, 부당 대우 등 다양한 업무상 사고에 대처할 수 있게 했다.

당진시는 안내 수첩 200부를 제작해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 고등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당진시 청소년이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고 인터넷 노동 상담을 위한 큐알(QR) 코드도 함께 제공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안내 수첩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KT&G 지배구조위원회, 차기 사장 후보 1차 속리스트 확정

외부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 반영… 사외 4명, 사내 4명, 총 8명

KT&G 지배구조위원회(이하 지구위)는 31일 지구위를 열고 사외 후보자 4명과 사내 후보자 4명, 총 8명을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속리스트)로 확정하고, 이날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했다.

지구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1차 속리스트를 선정했다.

향후 사추위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1차 속리스트 8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해, 2월 중순에는 후보자를 3~4명 내외로 입찰한 2차 속리스트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속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추위는 집중

적인 대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2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전체의 투표를 반영해 차기 사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사추위는 현직 사장을 제외한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백복인 사장은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예산군, 설맞이 2월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실시

2월 5일부터 1인당 50만원 한도



예산군은 지역 지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맞이 예산 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2월 5일부터 실시한다.

할인 판매 금액은 총 30억원(종이형 12억 원, 모바일형 18억원)으로 할인 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 한도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 은행 예산군 지부 외 44 개 판매 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착(chak)’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고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106개소를 제외한 관내 가맹점 307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정착 할행 상품권으로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농어민 수당은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박제화기자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2023 대전 · 세종 · 충남 수출입 동향> 발표

지난해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수출 25.4% 감소한 849억 달러 기록

지난해 대전 · 세종 · 충남지역 수출이 25.4% 감소한 84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지열)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이상준)는 <2023년 대전 · 세종 · 충남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통해 2023년 지역 수출은 25.4% 감소한 849억 달러, 수입은 177% 감소한 469억 달러, 무역수지는 3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대전(-8.6%), 세종(-23.0%), 충남(-26.1%)의 수출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가운데 지역 수출의 93.5%를 차지하는 충남의 수출 부진이 크게 작용했다.

글로벌 ICT 수요 감소 및 메모리 단기 하락 등으로 우리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 부품(54.6%) 수출에도 적신호가 겪졌다.

충남이 약 385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전과 세종의 무역수지는 각각 2억8천만달러, 2억7천만달러 적자로 기록했다.

지역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 지연, 수입제품 국산화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 고평 등이 지역 수출의 주된 감소 원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ICT 수요 감소 및 메모리 단기 하락 등으로 우리지역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 부품(54.6%) 수출에도 적신호가 겼다.

송병배기자



청양군에 장학금 기탁 행렬 이어져

방학 중인 학생들이 개학을 준비하는 요즘 미래 세대를 응원하는 청양군민들의 장학금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청양군 진문건설협회(회장 전완병)는 지난 30일 청양군청을 방문해 장학금 200만 원을 맡겼다.

전문건설협회는 군내 86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평소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희망나눔 성금,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준공 등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완병 회장은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드는데 우리 협회가 일의를 담당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6일에는 농협 신한은행 대전지점(점장 김현숙)에서 청양군청을 방문해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라며 100만 원을 전달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육군대학 외국군 장교 및 기족, 한효진서 효문화 체험 한국효문화 진흥원(이하 한효진)은 우리나라 설 명절을 앞두고 육군대학(총장 하대봉) 외국 수학장교 및 가족 22여명이 1월 31일 방문해 효문화 체험했다.



온양6동 행복기움 ‘밀반찬 배달서비스’ 추진 아산시 온양6동 행복기움추진단(동장 강현달 단장 이범영)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온양6동 봉사회(회장 오혜란)와 함께 취약계층 50가구에 밀반찬을 전달했다.



대전보훈청, 2024년 보훈사업설명회 개최 국가보훈부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민희)은 지난 31일 메이웨이 차이나웨이 대전보훈단체 지부장 등을 초청해 2024년도 보훈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우룡실업, 엄지아에게 후원물품 전달 주우룡실업(대표이사 이홍업)이 30일 아산시 엄지아에게 행복기움추진단(공동단장 허문욱, 고경경)에게 후원물품(양말 100세트)을 전달했다.



(사)좋은이웃, 당진지회 본격 출범

지난 27일, (사)좋은이웃(회장 김소당, 이하 '좋은이웃') 당진지회(지회장 이미경) 발대식과 지회장 취임식을 당진시 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2024년은 (사)좋은이웃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좋은이웃의 주요사업은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랑의 집수리 봉사, 베풋봉사, 따뜻한 온도 연탄나눔 퀸레이행사, 후원물품 전달, 청소년미래인재양성 페스티벌 등 필요한 곳에 맞춤형으로 사회공헌을 하는 순수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김소당 회장은 “낮은자세로 조심을 잊지 말고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하고 섬김의 기본은 가장 깊고 쉬운 것부터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당진지회장은 “평소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보고 느낀 점과 장단점을 잘 보완하고 성장해 당진 최고의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촉받은 입원진과 회원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김덕주 당진시의회장 축사와 충청남도 김지철 교육감, 이명수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백종현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고 각계각층 내외귀빈과 단체장들이 참석해 한층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아산=리량주기자



충청남도의정회, 서천특화시장 회재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충청남도의정회(회장 신재원)는 최근 서천특화시장 회재 복구와 피해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성금을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기탁하였다. 31일 열린 성금 전달식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제2부의장과 대한적십자사에서 참석했다.



한국수지원공사 감사실, 설 맞아 지역 특수학교에 후원금 전달 한국수지원공사 감사실은 31일 대전 대덕구 용호동 소재 특수학교인 해든학교에 방문하여 총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한국수지원공사 감사실이 설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 청양군지부, 설맞이 떡국떡 기탁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지부장 이동수)는 지난 30일, 청양군청을 방문해 떡국떡 100상자(200kg)를 기탁했다.



HD현대오일뱅크, 서산·태안 취약계층 위해 지역 농기자재 쌀 기탁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31일 대한노인회 서산·태안지회에서 김민태 상무,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우종재 서산노인회장, 이웅희 태안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미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된 쌀은 서산지역 농가에서 재배된 쌀로 서산지역 취약계층에 9000포, 태안지역 취약계층에 2000포가 지원된다.

충남대-하노이과학기술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적극 대응

베트남 국립농업대 연이어 '글로벌센터' 오픈

국립대학교 최초의 '글로벌 오픈캠퍼스' 구축을 위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 대학과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와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베트남 현지 '글로벌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충남대와 베트남 소재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UST)는 1월 29일, 이준우 부총장과 Huynh Dang Chinh(후인 당진) 부총장 등 양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본부에서 글로벌 오픈캠퍼스 설치 등에 관한 공동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합의각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이날 HUST 신소재공학과에 충남대-하노이과학기술대 '글로벌센터' 현판식도 가졌다.

이번 글로벌센터는 지난해 10



월 30일 체결된 '글로벌 오픈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MOA)의 후속 조치로서, 이미 충남대에 설립된 글로벌센터에 대해 HUST에 문을 열었다. 양 대학은 충남대-HUST 글로벌센터를 통해 공동 전공 교육 및 연구 협력, 한국어/문화 강좌 개설, 연구 장비 지원 등의 다양한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어, 1월 30일에는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VNUA) 비즈니스 혁신센터에서 이준우 부총장과 Pham Van Cuong(판반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치된 '글로벌센터'는 충남대와 현지 대학의 글로벌 오픈캠퍼스의 거점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하노이 과학기술대학교는 1956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고 명문 공과대학으로 매년 이공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우수 인재를 양성해 오고 있다. 베트남 국립농업대학교는 1956년에 설립된 농업 분야 특화대학으로, 충남대와는 다양한 교육·연구를 통해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글로벌 오픈캠퍼스와 관련해 충남대는 이번에 글로벌센터를 오픈한 베트남 HUST, VNUA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학들과 적극적으로 글로벌 오픈캠퍼스 구축을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와 함께 국제 공동 교육 및 연구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2024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설공서주식 회장, 대한 전문건설협회 감사패 받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회장 김양수는 31일 제31회 정기총회에서 전문건설의 권위 신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관리팀 서주식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회는 서 회장이 매년 국비를 확보해 공동체육시설 보수공사를 발주·감독하며 오시공·미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을 최우선 하는 현장관리를 통해 공정 하자부담 절감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대전투데이를 검색해보세요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예산군보건소, 조기 검진으로 중증질환 이환 예방 '총력'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병의원 10개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보건소는 신규 협약 병의원 확대를 위해 사업을 적극 홍보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기준 9개소에서 2024년 10개소(신규 예산 종합병원)와 최종 협약을 마쳤다.

보건소는 이번 협약으로 관내 병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혈압, 당뇨 및 이상 지질혈증 환자의 합병증 이환을 예방하는 한편 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질환 이환 위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당뇨병,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을 진단 받은 예산군민이며, 보건소 관리 대상 만성 질환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검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처방전(또는 처방 약봉투)을 소지하고 보건소 또는 가까운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만성 질환자로 등록 후 검진 의뢰서를 발급 받아 협약 의료기관에 제출 후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사 항목은 ▲당뇨혈색소 ▲미세단백뇨 ▲경동맥 초음파 ▲안과 검사가 있으며, 안과 검사는 1년 1회, 경동맥 초음파의 경우 2년에 1회 지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 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내 병의원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군민의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예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박제화기자



대전세종중기청, 대전 중앙시장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ぬ영 청장이 설명절을 맞아 지난 31일 대전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구매한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2024
새 해 복 많 이 받 으 세 요

태안군 농특산물과 함께

올 설날에는 가족과 고마운 분들에게 태안군 농특산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태안 사과



태안 김태



태안 전복



태안 한과



태안 우럭포



시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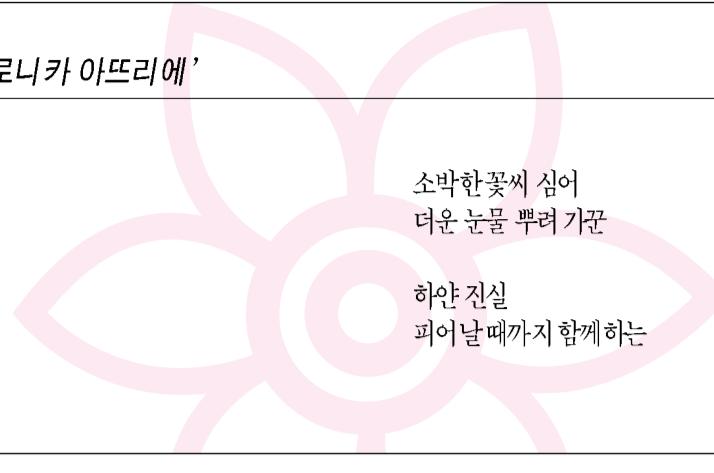


손영란 시인의 '베로니카 아뜨리에'

고결한 향기

황혼 미금고 편
초가지봉 위 박꽃 같은

손영란 作

소박한 꽃씨 심어
더운 눈물 뿌려 기꾼하얀 진실
피어날 때까지 함께하는

시의 향기



이애순 시인의 '연보라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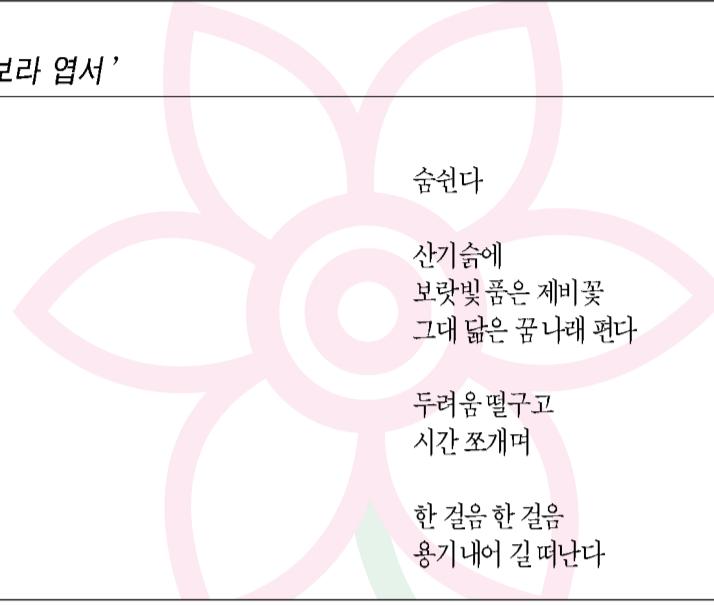
하늘빛 아래

비람이 찾아와
불길드리며 떠난다평화가 전신
감싸더니 일어선다나자막이 들리는
목소리 하나

숨쉰다

산기슭에
보랏빛 품은 제비꽃

그대 닮은 꿈나래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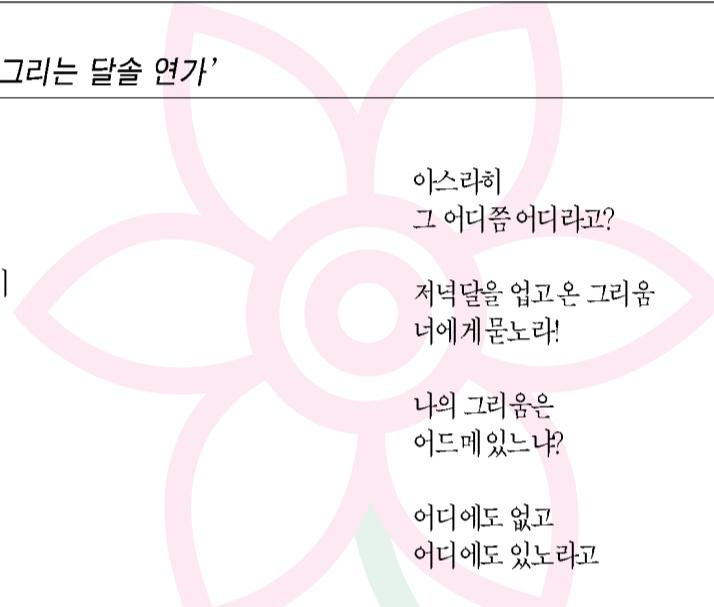
두려움 떨구고
시간 쪼개며한 걸음 한 걸음
용기내어 길 떠난다

시의 향기



장문자 시인의 '님 그리는 달을 연가'

그리움이 나에게

저녁달을 업고 온 그리움이
나에게 묻노라!너의 그리움은
어드대 있느냐?강 건너
산 넘어아스라히
그 어디쯤 아니라고?저녁달을 업고 온 그리움
너에게 묻노라!나의 그리움은
어드대 있느냐?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노라고

시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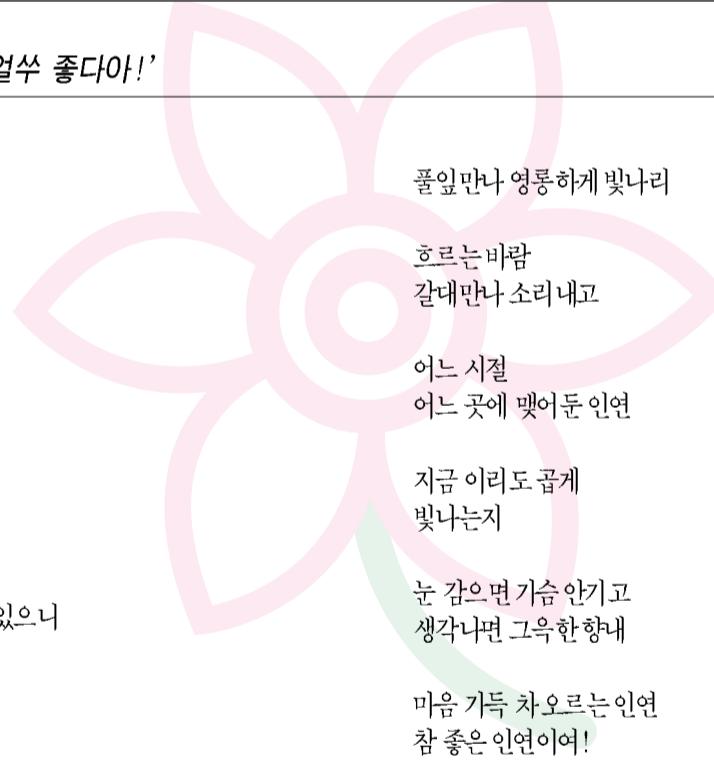
전소연 무용가의 '얼쑤 좋다야!'

참 좋은 인연

한 하늘 아래
한 줌 행복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참 좋은 인연흐르고 흐르는 세월
스치듯 살아가는 삶당신님 생각하며 웃을 수 있으니
참 좋은 인연

남 몰래 내린 이슬

풀잎만나 영통하게 빛나리

흐르는 바람
갈대만나 소리내고어느 시절
어느 곳에 맷어둔 인연지금 이리도 곱게
빛나는지눈 감으면 기슴 안기고
생각나면 그윽한 향내마음 가득 차오르는 인연
참 좋은 인연이여!

건강 칼럼



고령환자 생명 위협하는 대동맥판막협착증, 치료는?

지는 대동맥판막협착증 호흡곤란, 흉통, 실신, 혈압저하 등 증상 발생

심장에는 혈액이 제 방향으로 안전하게 흐르도록 문 역할을 하는 4개의 판막이 존재하고, 이 중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 위치, 대동맥으로 혈액이 나가는 대문에 해당하는 곳이 대동맥 판막이다. 대동맥 판막은 온몸으로 혈액을 내뿜기 위해 쉴 힘 없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퇴행성 심장질환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위이다.

대동맥 판막이 나이가 들면서 따

따해지고 좁아지는 질환이 대동맥 판막협착증으로 호흡곤란, 흉통, 실신,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증상이 발생된 직후부터는 사망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경우 평균 수명이 2~3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의 과정 표준

치료법은 약물과 수술이었다. 약물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병 자체의 진행은 막을 수 없다. 와

과적 수술은 나이가 많고 건강한 환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다. 최근에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TAVI)을 통해 기술을 얻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병든 대동맥판막을 대신할 인공판막을 삽입할 수 있게 되면서 판막질환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로

고령환자 수술부담 낮춰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은 증 대동맥판막협착 환자가 75세 이상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 불량으로 인해 외과적인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한 경우에 좋은 적응증이 된다. 시술 방법은 기습을 열지 않고, 대

퇴동맥을 통해 풍선이나 시술도관 내부에 장착된 인공 심장판막을 심장까지 넣은 후 인공심장 판막을 펼치는 치료법으로 심혈관 종재시술 중 난이도가 가장 높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 삽입술은 시술시간이 2시간 내외이며 회복이 빨라 입원기간은 4~5일로 시술 후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고, 통증이 적은 장점이 있다. 특히 고령 환자의 경우 수술 부담을 낮추고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현재 경피적 대동맥 판막삽입술은 80세 이상 수술 고위험 환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중등도 및 저위험군 환자에게도 적용증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술적 치료와 함께 대동맥판막협착 환자의 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편집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른신문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김우영 · 김성식 · 김종복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1만 5000원

등록번호: 대전기 00017 | 인쇄처: 동양일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설

초고령사회 대비, 노년층 건강관리 시급하다

고령화시대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년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일할 수 있는 노년층을 위한 인정적인 일자리에서부터 건강관리까지 하나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체육시설과 운동 프로그램 제공은 필수 항목이다. 운동을 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찾았다가도 운동량이나 분위기 탓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 맞춤형 체육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건강한 노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이다. 따라서 고령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우리나라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의 경우 노인인구는 20.6%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 기준치를 넘었다.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게 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가장 먼저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2022년도에 노인진료비가 무려 45조7천647억 원이었고 이는 2018년 대비 4년 만에 1.4배가 증가했다. 실제로 엄청난 비용이며 증가 속도 더욱 빨라질 것이다.

현재 공공체육시설 중 노인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건강증진센터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과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시설이 곳곳에 생겨야 하고 이곳에서 운동과 교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일석 이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대한민국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늘봄학교 확대 실시, 속도전으로 접근 말아야

정부의 늘봄학교 확대 실시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빠져나고 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체제다. 특별히 가정 등에 베풀어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학교 현장은 프로그램을 채울 강사 충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유휴 공간 확보 등이 난제이며 우려를 쏟아낸다. 충분한 내부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내놨다. 늘봄학교 시행 학교와 희망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은 1학년이 대상이다. 올 1학기 2천 곳이 넘는 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에는 6천 곳이 넘는 전국 모든 학교에서 운영한다. 2025년에는 2학년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은 걱정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경북·농촌 지역 등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채

용 자체가 쉽잖다. 변화기와 학교의 거리가 멎 때문이다. 설상가상 밤 시간대 안전지 원인에 주는 수당도 낮다. 저녁 식사도 배달에 의존하는데 역시나 원거리가 애로 사항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와 봤다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지적은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미 1, 2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돌봄교실이라는 비슷한 체계를 운영한 바 있다.

도시와 농촌을 비롯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정책은 실패한다. 일률적으로 운영 시간대를 통일해 확정하는 것도 곤란해 보인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읍면 단위는 지역 사정에 밝고 연대 의식이 강한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과 상생하는 대학의 자세를 권고하는 교육부의 방침대로 대학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이다. 돌봄 기능 강화가 늘봄학교의 태생이다. 출생률 저하를 막는 방법으로 고인된 만큼 지역과 손잡는 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군 대홍면, 찾아가는 인구증가 시책 홍보 펼쳐

“의좋은 형제의 고장, 대홍면으로 전입하세요”

예산군 대홍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면 소재지 유성구 및 식당·커피숍 등 35개소를 방문해 ‘예산 사랑 주소 갖기’에 대한 대책적인 홍보를 펼쳤다.

대홍면장과 면 직원들은 이번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인, 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현안인 인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군의 인구 증가 시책과 주소 전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했다.

또한 전입 지원 안내문과 전입 홍보 물품을 배포하고 홍보 벽보를 부착하는 등 인구증가 홍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대홍면은 마을 이장 및 면내 여러 단체와 협력하는 가운데 주소 전입 독려, 전입 지원 혜택 및 귀농자를 위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등 군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사랑 주소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산 = 박제화 기자

대전투데이

16 2024년 2월 1일 목요일

대전투데이



사단법인 환경상생포럼
Environmental Co-prosperity Forum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과 상생 어울림 제 1회 상생 어울림 · 상생 클린데이

제1회 상생어울림 · 상생클린데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으능정이 거리 환경정화활동과 더불어 음식나눔봉사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행사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3일 오전10시30분	으능정이 거리	상생클린데이 환경정화활동
2024년 2월 3일 오전11시30분	으능정이 거리	상생어울림 음식나눔봉사

- ◆ 주최 : 환경상생포럼, 대전광역시 환경노동조합, 대전은행동상점가상인회
- ◆ 같이합니다 : 사)소상공인성장지원협회, 중구청, 대전투데이
- ◆ 협찬합니다 : 성심당, 강남교자, 호광건설, 미래보증금융 대전지사, 성경개발

사단법인 환경상생포럼
공동대표 강석화, 오승근

